



채소지

채소를 알고 기록하는 곳

똑같은 채소라도, 농부마다 수많은 채소의 맛이 있습니다. 채소지에는 채소를 키우는 농부의 삶과 농사 이야기를 담습니다.

흙과 풀과 벌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의 숲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그곳에, 그 숲에서 자라나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 농부만의 특별한 채소 맛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연재배 밤 농부의 사계절

두 번째 이야기

관계 속에서 짓는 농사, 자연재배

세 번째 이야기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 12월의 밤



여러 손님들 사이에서 마르쥬@의 시그니처가 된 밤아저씨의 밤. 여러말 없이 '잡봐~' 한마디에 오독오독달콤고소한 아저씨의 자연재배 알밤을 맛보고 나면 다시 찾아올 수 밖에 없다.

산속에서 오롯이 혼자 일하시는 농부님을 도우려 몇 해 전 밤 농장을 찾았을 때, 활짝 웃으며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라며 반겨주시던 우제송 농부님. 자연 그대로의 산 구비구비 심겨진 밤나무를 따라 비탈을 타며 밤을 주웠던 그날. 허리를 펴라 치면 폭신한 낙엽 위에서 질푸른 수풀 사이에서 돌 틈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붉그레한 햇밤들이 반짝 빛났다. 햇살 아래 송이송이 벌어진 햇밤들이 탐스러웠던 가을 오후를 기억하며, 매년 밤이 열리는 계절이면 밤아저씨의 농장이 궁금했다.

떨어지자마자 벌레와 동물들이 먹는 햇밤을 미처 손이 없어 늘 반은 못줍는다는 밤아저씨의 밤산을 4년만에 다시 찾았다.

가을로 들어선 9월 말,
일찌감치 밤아저씨를 만나고 왔다.

밤아저씨

첫 번째 이야기

자연재배 밤 농부의 사계절



밤아저씨, 우제송 농부

우제송. 나이는 56년생. 이 동네 이름은 은골. 원래 청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젊은시절 잠깐 외지 생활도 했지만 이내 집으로 돌아왔다. 농촌에서 살았으니 내가 직접 농사를 안지였어도 늘 봐 온 것이 농사일. 아버지 농사일을 돕다가 본격적으로 내 농사를 시작한 것이 1999년이니 농



사지은 지는 20년 좀 넘었다. 그때 나이도 있고
하니 더 늦기 전에 저질러 본 거다.

공주, 부여, 청양 등 이 주변이 워낙 다 밤을 많
이 키운다. 요즘엔 충주 쪽도... 아버지께서 80년
도인가 사농으신 가족의 산이지만 돈 안되는 농
사다보니 혼자 이어가고 있다.



처음 몇 년은 저농약으로 시작했다, 하다보니 농
약은 아예 끊고 2006년부터는 자연재배를 시작
했다. 옛날부터 농촌에 살았으니, 약을 너무 많이
치는 거 보면서 거부감이 컸다. 예전에는 약을 정
말 많이 썼다. 들판에만 가도 농약 냄새 같은 것
때문에 다니기 힘들 정도로. 몸도 반응이 오고,
아무래도 좋을리가 없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에 거부감이 있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된 것도
있다. 우연한 기회에 정농회 회원들 모임에 참여



해서 유기순환농법에 대해 알게되고 자연재배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농법을 바꾸니 집안 어른들 걱정이 커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렇게 농사지으면 수확량이나 수익성을 생각할 때 이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그 말씀을 자꾸 듣기도 그래서 아에 농사일은 혼자 도맡아 한다. 혼자 일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하다. 혼자 있으면 다른거 간섭받는게 없으니, 산에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좋다.

자연재배는 외부에서 아무것도 안갖다 쓰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농사 짓는 거다. 자연적인 재료만 조금 갖다 쓰거나 한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도 정말 좋은가 조금씩 직접 실험해본다. 쌀겨가 미생물에 좋으니 그런거 가져다 밭에 좀 뿌려주기도 하고. 나무가 어릴 때 잘 키우면 적응을 해서 잘 자란다. 은행알 같은 걸로 천연 벌레 방제제를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

밤 말고 텃밭도 하는데 워낙 벌레가 많으니, 밤 농사 일하다보면 텃밭은 벌레가 다 먹어버린다. 그럴땐 주변에 농사 잘 짓는 사람들 것 조금 갖다 먹고 그런다.





임낙경 목사님과의 인연으로 자연치유모임에도 불러가곤 하는데 그렇게 연결된 환자들이 밤을 주문해 주신다. 자연재배로 키운 농산물들이 확실히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환자들은 비닐도 안쓰고 최대한 자연재배로 키운 농산물들을 구하고, 그게 없으면 그 다음단계인 유기농을 먹더라. 예민한 사람들은 전기 물 끓인 거도 못 먹고, 전기 보일러 같은 것도 못 쓰더라.

한국에 밤농사는 유기농도 별로 없다. 시중 밤은 크기를 키우기 위해 비료를 사용하고, 해충 방제제 같은 것도 쓴다. 실제로 벌레 막으려고 화학약품으로 훈증해서 파는게 대부분이다. 일반 농사



는 거름에도 영향을 받는다. 질소질이 너무 많은 거름을 주면 벌레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또 약을 써야 한다.

알이 크면 돈을 더 받으니 밤종자는 점점 알이 큰 쪽으로 개량되어 간다. 밤의 크기는 양분과 관계가 깊다. 비료를 쓰면 확실히 커진다. 우리 밤은 알이 작는데, 이거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전혀 안하기 때문이다.

사람도 짐승도 좋은 걸 조금씩 먹어야 한다. 과일도 기운이 차서 많이 먹으면 암이 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나는 믿는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들을 많이 먹는게 절대 좋은게 아니다. 건강하려면 좋은 놈 키워서 좋은 놈으로 먹으면 된다. 나는 내가 키우니 밤을 많이 먹는다. 다른 건 잘 안먹으니 밥대신도 먹고... 하지만 뭐든지 조금 먹어야 한다. 한번에 많이 먹으면 몸도 과부하 걸려서 안좋다.



자연재배 밤농사의 사계절

“남는 거는 자연에 되돌려주면 되니까,
거름 하고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한다.”



봄에는 가지치기도 하고 나무 정리를 많이 한다. 나무는 그냥 놔두면 숲처럼 가지도 너무 많이 막 자란다. 가지 갯수가 많으면 영양가가 10개로 나뉘어서 가는데, 좀 쳐주면 5개로 모아져서 갈 수 있으니까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억센 나무 같은 것도 정리해준다.

달리는 밤송이는 양이 매년 다르다. 많이 열렸다고 밤송이를 솎아주지는 않는다. 밤송이 숙기도 수확량을 늘리려 하는 건데.. 여기는 길이 다니기 좋은 일반 과수원 같은 곳이 아니라 산이라 쉽게 다니지 못하니까 주워서 운반하기 도 힘들고 산길에서



밤 몇키로만 주워도 내려오기도 힘이 부친다. 더 많이 생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7월부터는 풀을 베기 시작한다. 키 높이보다 커진 풀과 잡목들을 베어 두어야 가을에 밭을 주울 수 있다. 모든 일을 혼자 하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매일매일 계속 풀을 베는 거다. 밭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몰라도 그런게 아니니까.. 일꾼을 사면 품값을 하루 15~20만원 줘야 하니까 혼자 할 수 밖에 없다. 미리미리 베어놓고 시간 지나면 또 커 버리지만 한번 베어놓으면 그 다음은 좀 쉬우니까 여름에는 내내 풀을 베다.

농사 일이야 만들면 일이고 많은데, 면적이 크니 제대로 다 못한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요즘은 필요한 것만 하니까 그전보다 좀 덜 힘들다. 후순위로 밀리는 건 그냥 놔둔다. 경험이 쌓이니까 필요한 것만 하는 거다.

자연재배라고 해서 그냥 두는게 아니라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다. 가지 치기도 하고, 안좋은 거는 베기도 하고. 발육이 부진 한 거는 가지를 반으로 딱 줄여서 잘라주면 양분이 덜 소모되니까 살아난다. 그냥 놔두면 수확을 못한다.





가을에는 내내 수확을 한다. 한 나무에 네댓번은
밤을 줍는다. 거의 끝에, 밤송이들이 거의 다 벌어
졌을 때는 흔들거나 발로 차거나 장대로 털어서 수
확한다. 그것도 혼자 하면 힘들어서 많이도 못한
다. 겨울에는 바쁠 때 못한 가지치기도 하고 저녁
에 심심하면 밤도 깎고. 농사 계획도 세운다. 눈
이 쌓이지만 얇으면 농막까지 오는 건 문제 없으
니 매일매일 산으로 온다.

난 주로 농부시장에서 판매하는데 많이 파는 것
이 아니니 이제는 수확도 많이 안한다. 필요 없
는건 베어버리고. 그래도 남는 거는 자연에 되돌
려주면 되니까, 거름 하고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한다.

